https://doi.org/10.5392/JKCA.2017.17.08.325

# 사회복지전공교육에서 플립러닝 교육방식의 효과

## A Study on the effect of Flipped Learning Program in Social Welfare Education

**김소진**
중부대학교 복지학부

So-Jin Kim(sojinkim@joongbu.ac.kr)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이론중심 교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에 대한 플립러닝 수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특별히 이 연구는 현실에서 활용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수업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의 수업평가와 자기평가를 실시해 질적분석하였으며,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도 사전-사후 검사를 하여 양적분석하였다. 그 결과 플립러닝 수업방식은 사회복지학의 이론중심 교과목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에 대해 긍정적 태도변화를 보였고 이해력 및 발표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실제로 수업 후 자기효능감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사전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확인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학습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소극적 참여자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참여자들 상호작용을 고무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교수자에 의해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플립러닝 | 교수법 | 사회복지전공교육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flipped learning lesson on the human social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subject.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 this study conducted qualitative analysis of class-evaluation and self-evaluation and quantitative analysis using the questionnair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flipped learning method works very effectively in the theoretical curriculum of social welfare. Participants assessed that their comprehension and presentation skills improved. In addition, their self-esteem improved after this class. However, this teaching may be rather negative for participants who had difficulties in pre-learning or a passive attitude.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s, the instructors should be prepared to make pre-learning better. As well as, they should prepare countermeasures for passive participants, and help interact well among the participants.

■ keyword : | Filpped Learning | Teaching Method | Social Welfare Education |

## Ⅰ. 서론

인간의 삶 속에서 복지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3년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시험 도입과 사회복지교과목 지침이 마련된 이후 사회복지교육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 이 논문은 2017년도 중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접수일자 : 2017년 05월 30일
수정일자 : 2017년 06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6월 30일
교신저자 : 김소진, e-mail : sojinkim@joongbu.ac.kr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간의 욕구 및 그 해결 방법을 위한 이론들을 통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이를 교육하는 교수법에 있어서도 전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전문적 교육방법에 의해 숙련되었을 때, 사회복지사들은 제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실천하게 되어 소외된 사람들의 이익신장에 앞장서고 공익을 추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1].

하지만 사회복지인력 양성기관의 증가에 반해, 사회복지의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법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고, 실제 이에 대한 연구들도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문제중심학습법을 적용한 연구[2], 현장실습과 병행한 연구[3][4], 프로젝트 학습을 활용한 연구[5] 등이 새로운 교육방법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회복지교과목 전반에 걸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교수법이라 보긴 어렵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이하 인행사) 교과목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인행사는 사회복지 교과과정에서 필수교과목으로 채택될 만큼 중요한 교과목이다[6]. 또한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옹호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교과목으로 강조되고 있다[7]. 그 이유는 인행사 교과목이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에 관련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이론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이 과목이 지나치게 이론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있다. 이와 달리 다양한 이론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가 함양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8-10].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어려운 이론들을 이해시키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수업방식은 이러한 점에서 인행사 과목에 유용한 교수법이 될 수 있다. 플립러닝은 우리 사회에서 '거꾸로 수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방식은 수업 참여자들이 수업 전에 동영상 자료와 기타 자료들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속도와 요구에 맞추어 개별학습을 하는 것이다. 대신, 교실에서는 교사들이 강의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11]. 이를 통해 수업 참여자들은 학업동기와 참여도가 증가하여 성취감과 자신감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의 자아효능감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2]. 이러한 측면에서 인행사 과목과 같은 이론중심 교과목의 경우, 플립러닝 수업방식은 강의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론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강의시간에는 학생들이 사전학습한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논의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해, 본 연구는 플립러닝 방식을 활용한 인행사 수업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학 이론과목에 플립러닝 수업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 교수법이 될 수 있을지를 평가해 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험상황이 아닌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II. 선행연구검토

최근 많은 교수자들이 교수법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효율적 강의를 위한 다각적 모색을 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대중의 영역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13]. 이에 대학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에 관심 갖고 있다.

플립러닝에서 '플립(Flipped)'은 '뒤집힌', '거꾸로', '반전'의 뜻을 품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업방식이나 역할을 바꾼다는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플립러닝 방식의 수업은 기존 강의식 수업에서 수동적 학습자였던 학

생들이 능동적 주체로 바뀌고, 반대로 전통적으로 수업에서 통제적인 지식전달자로 존재했던 교수자가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조력자로 역할이 바뀌는 교수방법을 의미한다[14].

플립러닝을 처음 주창한 Bergmann과 Sams는 교사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미리 녹화하여 제공하고, 이를 보고 온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의문 나는 점을 질문하여 교사가 어려운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플립러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플립(Flipped)'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플립러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학생들은 동영상 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을 수업 전에 활용하여 개별학습을 할 수 있으며, 교수자는 강의식 방법만이 아닌 토론이나 실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플립러닝은 사전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자는 학생들의 이해정도에 따라 개별적 지도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차원적인 사고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법으로 알려져 있다[15]. 실제 플립러닝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플립러닝 수업 참여자들의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16-19]. 또한 전통적 학습방법에서 낮은 참여도를 보인 학습자들의 경우 컴퓨터라는 매체를 활용하는 이 방법을 통해 참여도와 학습동기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다[20]. 그 결과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독립적인 학습에 필요한 자아효능감도 증진되었다고 한다[18]. 이 외에도 필립러닝을 활용한 교양수업에서 대학생들의 의사소통과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21].

이와 달리 일부 연구들에서는 플립러닝이 참여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대학수업에서 플립러닝과 전통적 강의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플립러닝 수업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22], 학업성취도나 학습태도 측면에서 플립러닝 방법이 조금 나은 결과를 보이기는 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14].

물론, 플립러닝 수업방식의 효과가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한 것은 아니다. 국내의 일부 연구결과들은 플립러닝의 부분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등교육과정에서 플립러닝과 강의수업을 비교한 결과, 교과친숙성이나 학습태도 등의 주관적 측면의 변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학업성취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23][24]. 또한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학 교과목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플립러닝은 학습자의 자기조절과 계획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지만, 자신감을 증진시키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러한 결과들은 모든 수업에서 플립러닝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단순히 수업 활동을 거꾸로 돌린다고 해서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혹자는 플립러닝이 수업 전 강의영상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하고, 영상만 제작하여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학습이 발생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25]. 그러나 플립러닝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업내용을 비롯해, 면대면 수업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유의미한 학습활동이 중요할 수 있다[16]. 이러한 측면에서, 플립러닝이 어떠한 수업에, 그리고 어떠한 방식과 결합해야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이론과목 중의 하나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수업에 대한 플립러닝 적용효과를 사례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특별히, 수업은 토론수업을 중심으로 하여 보충적으로 질의응답 하는 방식이 선택되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수업설계와 분석전략, 그리고 분석결과에 대해 정리된 내용들이다.

## Ⅲ. 연구방법

### 1.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J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행사 수업

참여한 38명의 참여자들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1학년이며, 2명은 재수강을 목적으로 참여한 3, 4학년이다. 참여자 모두는 강의식 수업을 비롯하여 토론식 수업, 발표 수업, 실험실습 등에 참여한 경험은 있으나, 플립러닝 수업방식에 참여한 경험은 없는 학생들이다.

### 1.2 수업설계

인행사 수업은 중간 및 기말시험을 제외한 13주간 플립러닝으로 진행되었다. 수업내용은 한국사회복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인행사 교과목 내용으로 구성되었다(자세한 내용은 '2015-16년도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 참조).

수업의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교수자는 학기 초 강의 소개를 통해 플립러닝 수업에 대해 소개하고, 참여자들을 5-6명이 한 조가 되도록 배치하였다. 이후에는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각 주차별로 플립러닝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시간(3.0h)의 배분은 대략 도입(1.5h), 전개(1.0h), 마무리(.05h)의 비율로 이루어졌다.

**표 1. 플립러닝 수업진행방법**

| 수업전개 | | 참여자 활동 내용 |
|---|---|---|
| 수업전 | | ○ 교수자: 수업전략구상, 강의영상제작(60분)/탑재<br>○ 학습자: 강의영상 시청, 토의/질의 내용 준비 |
| 수업중 | 도입 | ○ 교수자: 조별활동 지시/주의사항 전달/개별지도<br>○ 학습자: 토의/질의내용에 대한 조별활동 |
| | 전개 | ○ 교수자: 수업주재/사회/<br>○ 학습자: 전체토론/질의응답(조별간 활동) |
| | 마무리 | ○ 교수자: 수업내용 피드백<br>○ 학습자: 교수-학습자간 협업을 통한 이론정리 |
| 수업후 | | ○ 수업내용 개별정리 |

### 1.3 분석도구 및 방법

플립러닝 수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하나는 개방형 질문을 통한 수업평가와 자기평가이다. 연구는 참여자들에게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업에 대해 느낀 점(장점 및 단점), 다른 수업과의 차이점, 어려웠던 점, 그리고 자신의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질적분석하여 주요 요인들을 상정하였다.

다른 하나는 자기효능감 척도를 활용한 사전-사후분석이다. 연구는 수업 첫 시간에 자기효능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분석(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함으로써 플립러닝 수업방식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한편,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그리고 과제난이도 선호에 대해 각 5개 문항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26]이 24개 문항으로 자신감(7), 자기조절효능감(12), 과제난이도 선호(5)를 물었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김은하[27](2013)가 간소화한 것이다. 문항의 신뢰도(Chraonbach's $\alpha$)는 0.754이다.

## Ⅳ. 분석결과

분석결과는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앞부분은 참여자들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플립러닝 방식에 대한 수업평가와 자신에 대한 자기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자기효능감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1. 질적분석

#### 1.1 수업평가

수업참여자들은 플립러닝 수업방식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다. 특히 본 조사에서 참여자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를 플립러닝의 장점으로 꼽았다.

##### 1.1.1 신선함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우선 플립러닝 수업방식이 참신하고 신선했다고 평가했다. 교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지식이나 정보와 달리, 플립러닝은 사전에 제공된 영상자료를 통해 기본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공되는 자료가 영상자료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 듯하다. 책으로만 수업준비를 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보다 수업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수월성이 높았다는 평가이다. 참여자들은 또한 플립러닝이

기존의 토론위주의 수업과도 다르다고 한다. 단순히 주제만 주어지는 토론수업에 비해, 플립러닝은 수업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상자료를 토대로 수업시간 내에 질의응답과 논의, 그리고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플립러닝 방식을 통해 수업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 하나 하나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 대학 4년을 다니면서 처음 진행된 수업이라 신선했다. 인강(인터넷 강의)을 듣고 수업에 와서 토론을 한다라는 게 좋았던 것 같다(화4). 참신하게 내게 다가온 수업방식이 재밌었다(화5).

> 다른 수업과는 다르게 진행하는 수업인 만큼 새롭고 교수님과 학생들끼리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었다(화16).

> 신선했고, 아이들의 수업 태도가 전반적으로 모두 좋았다는 것이 놀라웠고, 나 스스로도 집중력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었고 한 학기 동안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수업에만 열심히 참여하였더니 머릿속에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화13)

1.1.2 참여와 소통

참여자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참여와 소통이었다. 참여자들은 다른 수업방식과 달리 토론과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또한 수업 중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친근하게 느껴졌으며, 그래서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다고 말한다. 무언가 동료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참여자들의 이러한 느낌은 사전학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전학습은 토론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논의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상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다른 참여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 것이다.

> 다른 수업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기 어려운데, 이 수업을 통해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화18).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었으며, 보통 교수님과 학생의 거리가 멀다고만 느껴졌는데 인행사 수업때 만큼은 그 수업을 듣는 모든 이들과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화16)

> 아는 것들과 새롭게 알고 싶은 것을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토론에 필요한 문제만들기 등을 이용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으로 동기들과도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화11)

>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친구들이 채워주고, 다른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채워주는 상호작용을 통해서...(화12). 효과적으로 내용 이해가 빠르게 되고,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금9)

1.1.3 기회와 자유

사전학습은 또한 참여자들에게 기회와 자유를 준 것으로 파악된다. 한 주제에 대한 적절한 사전 학습은 수업시간 내에 다른 참여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케 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 듯하다. 즉,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학습을 통해 학습된 정보를 토대로 질의와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토론수업과 달리 발언의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었다고 한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기회들이 자유로운 표현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플립러닝방식이 이전 수업형태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기존방식은 계획된 진도를 나가기에 급급했던 반면, 이 수업방식에서는 진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수업내용을 넘나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보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평가이다.

> 평소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금11).

>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각각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모두에게 말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점이다(금11). 다른 수업들은 내 의견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적고...(화4). 힘들었지만 토론식이라 자유로웠고, 지루하

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다(금17)

즐겁고 내 의견을 눈치보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화9). 좀 더 쉽게 이해가능하고, 자유로운 수업방식인 수업이다(화16).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전 수업형태보다 훨씬 많았다(화17)

1.1.4 집중

플립러닝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었던 또 다른 단어는 집중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수업방식이 자신들로 하여금 수업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가 있었으며, 수업 중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평가했다.

참여자들이 보다 수업에 집중을 하게 된 배경 역시도 사전학습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사전에 학습한 내용을 질의와 토론으로 보다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집중하는 자신을 보았던 것이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배가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참여자들의) 수업 태도가 전반적으로 모두 좋았다는 것에 놀라웠고, 나 스스로도 집중력이 매우 좋았던 것 같다(화12). 이전에는 시간만 보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좀 더 적극적이게 되었습니다(화1)

집중력이 되게 짧은 편이었는데, 집중력이 조금 좋아진 것 같다(화8). 강의를 먼저 듣고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고, 토론과 문제를 맞추는 것을 통해서 더욱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재미었다(신기했다)... 친구들과 함께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보완해 준 점도 보완해 주어 졸지 않고 집중하기 쉬웠다(화6).

강의식 수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루함과 피곤함이 묻어났는데, 거꾸로 교실수업은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금7). 보통 수업을 듣는다면 졸거나 딴 짓하는 행동이 많았지만, 이 수업은 그럴 틈이 없이 의사소통을 하며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점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기존 수업에서는 자거나 핸드폰 등 딴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수업을 들으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화16).

예습 없이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집중도나 참여도가 상승되었다(금1). 한 번 듣고 오기 때문에... 강의 때 강의듣기가 편안하고,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며...(금12). 알고 있었던 것을 계속 이야기하다보니 이해하기가 편하고, 알고 있던 내용을 심화적으로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으며, 수업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금10).

1.1.5 극명한 차이

플립러닝에서도 문제점은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에 의한 평가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확인된다. 그 중 하나는 사전학습을 한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참여자 사이의 격차이다. 다른 수업과 달리 플립러닝에서는 사전학습을 하지 않은 참여자들이 수업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당일 다루어지는 내용을 전혀 학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자각한 참여자들은 수업에서 다른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보다 열심히 예습하기도 하고, 그것이 습관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전학습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왔을 때와 아닐 때의 분위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조원들과 토의할 때도 모르고 할 때에는 정말 어렵고...(금12). 강의를 듣지 못했을 때 친구들에게 피해가 갈까 미안했다(금15)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집중이 되지 않을뿐더러 허투루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금16)

강의를 듣지 못한 경우 수업을 따라 갈 수가 없다(금18). 정말 이유가 있어 강의를 듣고 오지 못하면 수업의 내용을 쫓아가기 힘들다(화17).

다른 하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참여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이다. 많은 참여자들이 플립러닝은 소극적인 참여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수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비록 다수의 참여자들이 수업진행 중에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참여자들이 있다. 그런 참여자들의 경우 수업 자체에 큰 부담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수업에서 낙오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참여자들의 수가 많으면, 전반적으로 수업의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수업의 효과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소극적인 조원들은 발표자체를 꺼려하는 점이 힘들었다... 발표할 기회가 늘고 적극적인 수업이 장점이지만, 원래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들에겐 부담스러운 수업 같다(금6). 공부를 잘하지만 발표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발표를 하지 못해 치명적인 거 같습니다(금10).

어려웠던 점은 역시 소심한 학생들에게는 수업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발표가 어려운 친구들은 자신이 답을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학생들이 있다. (금11)

소극적인 친구들이 대다수이면 분위기가 좀 더 못한 것이고, 적극적인 친구들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질 수 있어 대다수의 소극적인 친구들은 낙오될 수 있다(화17).

### 1.2 자기평가 1: 태도변화

참여자들은 플립러닝 수업방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에게서 주로 확인되는 태도변화는 크게 아래의 세 가지이다.

#### 1.2.1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자기평가를 함에 있어,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적극적', '자발적'이란 단어였다. 이들은 이전과 달리 자신들이 플립러닝 수업에 매우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응답내용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러한 태도변화는 사전학습과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져온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사전학습은 참여자들이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수업내 상호작용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전학습을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만드는 선순환을 일으킨 듯하다.

나는 평소에 발표라던가 손을 드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이라서 질문의 답을 알고도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인행사 수업 후에는 부족하지만 아는 질문이 나오면 손을 들고 발표하게 되었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 자발성이 가장 발전되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자신이 아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가질 수 있었다(금11).

수동적이었고 누가 시키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말을 했다는 점이 작지만 큰 변화였다(화8). 질문에 답변하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물쭈물 거리고 어색하지만, 생각만 하는 것에서  말하기까지 조금씩 늘어나는 것입니다(금12).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화11). 모두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업분위기가 활동적이고...(금13).

조원들과의 토론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보다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강의를 열심히 듣게 되었고(금6)

#### 1.2.2 학습욕구 증가

플립러닝 수업의 참여자들은 다른 수업과 달리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컸다고 평가한다. 또한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하기 위해 스스로 더 열심히 사전학습을 하려는 의욕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학습욕구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사전학습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이 참여를 촉진시키고, 이것이 수업과정 중에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이어지면서 학습욕구를 개선시킨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수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억력 상승과 발표력 향상 등도 참여자들의 학습욕구를 고취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하다.

예습을 해가니 뭔가알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참여 욕심이 생겼다(금1). 더욱 학습욕구가 불타올랐던 것 같다(화13). 발표하고 싶어서 빠짐없이 들었다(금6)

공부해 오는 시스템을 접하면서 수업시간 외에 공부시간이 많이 늘었다(화14). 모르면 토론과 토의에 참여할 수 없어서 열심히 하게 되었고 수업이 재밌어 졌다(화7)

다른 수업보다 재밌고 기다려지는 수업이었다. 교수님의 리액션과 내가 손들고 대답했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친구 생각을 덧붙여 더욱 쉽게 수업내용이 이해되었고, 기억에 더 남는다(화6)

자신의 생각을 더욱 더 높이고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기량을 높을 수 있었다(화12). 앞으로도 토론으로 더 똑똑해지고 이해력을 향상시킬 것이다(화15)

#### 1.2.3 습관화

어떤 습관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플립러닝 수업방식은 참여자들의 학습습관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참여자

들은 자신의 학습습관이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한다. 스스로 사전학습을 하고,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며, 수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방식의 변화가 학생들의 태도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 공부방식이 바뀌어서 예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금2). 내 스스로 미리 준비해가는 습관이 생겼다(화5)

> 수박겉핥기 식으로 했던 공부습관을 조금이나마 고칠 수 있게 되었다(금4)

> 인터넷 강의를  듣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중간에 자기 마련이었지만, 인행사 강의를 들으며 집중을 하게 되었고...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습니다(금7)

### 1.3 자기평가 2: 수업성과

플립러닝을 통해 참여자들은 학습에서 여러 성과들을 경험했다. 대표적으로 이해력과 기억력, 그리고 발표력이 향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참여자들은 자신감마저 커졌다고 평가했다.

#### 1.3.1 이해력 증가

플립러닝이 가져온 수업성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참여자들의 이해력 증가이다. 수업내용이 대부분 어렵고 딱딱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다소 놀라운 것이다. 참여자들은 사전학습, 동료들과의 논의, 그리고 반복학습이 개념들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신과 다른 참여자들의 의견을 비교하면서 학습내용을 보다 폭넓게 이해했다는 평가이다.

> 인행사와 같은 이론부분에서는 (이 수업방식이) 개념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금7). 미리 수업을 듣고 와서 수업내용에 대해 이해하기가 편했고, 조별 토론을 통해 시험문제를 예측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금2).

>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먼저 듣고 와서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고, 모르는 내용은 교수님이 알려주셔서 이해가 빠르게 되었던 것 같다(금9). 무작정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덜 지루하고, 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니 이해가 빨리 되었던 것 같다(금10).

> 답변하는 능력과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화3). 아이들이 질문에 답할 때, 답이 무엇인지 내 지식과 비교하게 되고, 모르는 답이라도 듣고 이해가 된다(화18)

> 개념에 대한 애매모호한 질문들을 그냥 넘길 수 있었겠지만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 넓힐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많은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같이 이야기 하면서 더욱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고...(화12)

#### 1.3.2 기억력 증가

수업내용에 대한 기억력 증가는 플립러닝의 또 다른 수업성과로 들 수 있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본 수업방식을 통해 수업내용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사전학습과 본 수업, 그리고 참여자들 간의 토론을 통한 반복학습이 이러한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한 이해력 증가는 기억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 접목되어 체계화되면서 이해력과 기억력이 동시에 향상되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 수업시간엔 그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니까, 보통 암기과목을 미친 듯이 암기하려 하지 않아도 기억이 오래 남아서 시험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금1)

> 제가 외우는 것을 잘 못하는데, 인행사 수업을 들으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서 좋았다(화7). 나의 생각과 다른 친구 생각을 덧붙여 더욱 쉽게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기억에 더 잘 남는다(화6). 공부한 부분에 대해 여러 명의 의견을 듣다보니 평소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거 같다(화2)

> 알고 있던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기억에 좀 더 오래 남았던 것 같다(화14). 다른 수업들은 며칠 지나면 기억에 남지 않은데, 이 수업은 시간이 지나도 조금만 생각하면 어떤 것인지 생각난다(화18). 자기의 것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했다. 무엇보다도 그냥 여태껏 학습했던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남아 있는 것이 없을 수 있겠다 생각한다(화12)

#### 1.3.3 발표력 향상

사전학습을 토대로 진행된 토론 및 발표수업은 학생들의 발표력 향상에도 기여한 듯하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발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외의

참여자들은 토론이나 질의응답 기술이 발전했다고 한다. 수업참여도 및 집중력 향상, 그리고 수업내 자유로운 분위기는 등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 원래 발표를 잘 안했는데, 인행사 수업을 들으면서 발표를 잘하게 되었다(금6). 토론능력과 집중능력, 경청 등 다방면에서 많이 발전하였다. 그 중 수업참여도(토론 및 발표)능력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금1)

> 이 수업을 통해 가장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발표하거나 질문하는 능력이 발전되었다는 것이다(화1). 거꾸로 교실의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이어서 표현력이 제일 발전된 것 같다(화17)

#### 1.3.4 자신감 향상

앞서 언급한 모든 분석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참여자들의 자신감 향상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수업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 수업중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한 경험,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등은 참여자들의 자기확신을 고취시켰다. 그 결과 다수의 참여자들은 플립러닝 수업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 한 번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 자신감!(금5). 내가 손들고 대답했을 때의 뿌듯함(화6).

> 이 수업방식을 통해서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다(금1). 원래 발표를 제대로 하는 성격이 아닌데, 강의를 꼼꼼하게 들어서 그런지 자신감이 붙었다(금6).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지금보다 더 자신 있게 발표하고, 질의응답에 참여 할 것이다(금12).

>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말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었다(금16). 인행사 수업 후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아는 질문이 나오면 손을 들고 발표하게 되었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손을 자주 들게 되었고 자신감이 생겼다(금11)

> 내가 이해한 사실을 남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 (그리고)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화12).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더욱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화12).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발표할 때 자신감을 얻었다(화10)

## 2. 양적분석

### 1.1 자기효능감

본 연구는 플립러닝 수업이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2]는 설문참여자 34명[1]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

분석결과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은 플립러닝 수업을 통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자기효능감 점수는 사전조사에 43.29이었으나 사후조사에서는 47.97로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2.374). 따라서 플립러닝 수업이 자기효능감 개선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선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3가지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기조절효능감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과제난이도의 경우는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2.23 정도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는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마찬가지로 자기조절효능감 역시 1.70 증가했고,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자신감은 비록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석말숙(2016)의 연구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표 2.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분석**

| | | 평균 | 표준편차 | 차이검증 | | |
|---|---|---|---|---|---|---|
| | | | | 평균차이 | 표준편차 | t-value |
| 전체 | 사전 | 43.29 | 5.35 | -4.67 | 11.48 | -2.374* |
| | 사후 | 47.97 | 9.15 | | | |
| 과제난이도 | 사전 | 12.29 | 2.23 | -2.23 | 3.66 | -3.553** |
| | 사후 | 14.53 | 3.60 | | | |
| 자기조절효능 | 사전 | 15.65 | 2.29 | -1.70 | 4.06 | -2.448* |
| | 사후 | 17.35 | 3.32 | | | |
| 자신감 | 사전 | 15.35 | 2.82 | -.73 | 6.63 | -0.647 |
| | 사후 | 16.09 | 5.14 | | | |

* p<.05 ** p<.01 *** p<.001

### 1.2 개선집단과 악화집단

질적분석 결과에서 언급되었듯이, 플립러닝 수업이

1) 38명의 참여자 중 4명은 일부 설문문항에 무응답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몇몇 참여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수업이 기존의 수업방식과 큰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불편하고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서 자신감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서는 사전-사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수업후 자기효능감이 개선된 집단과 악화된 집단(변화없음 포함)을 구별하여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표 3]은 자기효능감이 악화된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이 집단의 경우 전체적 자기효능감은 45.73에서 40.60으로 약 11%가 하락했으며, 이러한 감소는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만, 이러한 자기효능감 감소의 주된 원인은 자신감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감 수준은 30%가 하락해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이유는 질적분석에서 관찰되었듯이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는 참여자들이 수업방식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 자기효능감 악화집단**

| | | 평균 | 표준편차 | 차이검증 | | |
|---|---|---|---|---|---|---|
| | | | | 평균차이 | 표준편차 | t-value |
| 전체 | 사전 | 45.73 | 4.33 | 5.13 | 6.36 | 3.122** |
| | 사후 | 40.60 | 5.22 | | | |
| 과제난이도 | 사전 | 12.93 | 2.46 | -.40 | 3.29 | -0.471 |
| | 사후 | 13.33 | 2.74 | | | |
| 자기조절효능 | 사전 | 15.73 | 2.28 | .40 | 3.15 | 0.491 |
| | 사후 | 15.33 | 2.38 | | | |
| 자신감 | 사전 | 17.07 | 1.22 | 5.13 | 3.06 | 6.481*** |
| | 사후 | 11.93 | 3.05 | | | |

* p<.05 ** p<.01 *** p<.001

이와 달리 자기효능감이 개선된 집단의 경우는 세 가지 하위요소 모두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표 4]를 보면, 자기효능감이 30%정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요소별로 과제난이도 선호는 31%, 자기조절효능감은 22%, 그리고 자신감은 38% 정도 개선되었다. [그림 1]은 두 집단의 사전-사후 변화의 양상을 간략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4. 자기효능감 개선집단**

| | | 평균 | 표준편차 | 차이검증 | | |
|---|---|---|---|---|---|---|
| | | | | 평균차이 | 표준편차 | t-value |
| 전체 | 사전 | 41.37 | 5.39 | -12.42 | 8.18 | -6.618*** |
| | 사후 | 53.79 | 7.16 | | | |
| 과제난이도 | 사전 | 11.79 | 1.96 | -3.68 | 3.35 | -4.793*** |
| | 사후 | 15.47 | 3.97 | | | |
| 자기조절효능 | 사전 | 15.58 | 2.36 | -3.36 | 3.98 | -3.681** |
| | 사후 | 18.95 | 3.13 | | | |
| 자신감 | 사전 | 14.00 | 3.01 | -5.36 | 4.68 | -4.999*** |
| | 사후 | 19.37 | 3.94 | | |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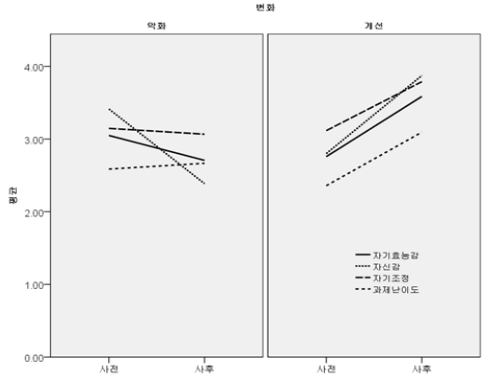


**그림 1. 자기효능감 악화집단 vs. 개선집단**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롯해,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자신감 요인만 변화가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바로 악화집단과 개선집단에서 관찰되는 자신감 개선효과의 차이에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질적분석에 의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소극적 참여자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업참여에 소극적인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플립러닝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V. 결론

이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이론중심 교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에 대한 플립러닝 수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특별히 연구는 현실

에서 활용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수업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플립러닝 수업방식은 참여자들에게 생소하지만 신선한 수업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참여자들은 플립러닝 수업이 참여와 소통을 가져오며, 기회와 자유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또한 수업에 집중하기 좋은 수업방식으로 평가했다.

둘째, 플립러닝 수업은 참여자들의 태도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참여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학습욕구가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심지어 학습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셋째, 플립러닝 수업은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해력과 기억력, 발표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은 수업 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양적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언급한 플립러닝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대부분 잘 수행된 사전학습과 이를 통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긍정적 피드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이 상승작용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이처럼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사전학습을 하지 못한 경우나 지속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참여자들이 많은 경우는 수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듯했다. 뿐만 아니라 수업에 소극적인 참여자가 많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들로 지적되었다. 그 결과 실제로 플립러닝 수업 후에 오히려 자기효능감, 특히 자신감이 하락한 친구들이 적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플립러닝 수업방식은 사회복지학의 이론중심 교과목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전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 강조되었던 영상자료의 분량, 조원구성의 문제, 그리고 교수자의 태도 등도 참여자들의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19]. 따라서 사회복지학 이론중심교과목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할 경우, 사전학습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소극적 참여자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참여자들 상호작용을 고무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교수자에 의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사실 프로그램의 효과는 정교한 실험설계에 기초할 때 보다 명확해 진다. 그런 점에서 비실험설계 방식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내적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비교집단을 설정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플립러닝의 학습효과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가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측면에서 외적타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동일 교과목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다른 학습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1] 전선영, “사회복지가치를 매개로 한 사회복지교육과 옹호태도 및 전략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4호, pp.35-65, 2005.

[2] 문영주, “대학생의 학업동기 향상에 있어 문제중심학습 교수법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1호, pp.47-70, 2009.

[3] 한인영, 박형원, 김주현, “이러닝의 학습동기 및 학업성과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pp.251-276, 2005.

[4] 고유순, “현장사례실습을 활용한 사회복지실천론 교육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제28권, pp.199-233, 2014.

[5] 배진희, 김경휘, 김근곤, 서혜석, 이정미, “사회복

지교육에 있어서 프로젝트 학습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8권, pp.1-22, 2012.

[6] 임현승, 김준경, 김철희, 정한채, "미국의 사회복지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제29권, pp.1-18, 2015.

[7] 전선영,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 한 사회복지교육과 옹호 태도 및 전략의 인과관계,"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4호, pp.35-65, 2005.

[8] J. M. Schiver,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Shifting paradigms in essential knowledge for social work practice,* Allyn and Bacon, Boston, 2001.

[9] J. Daniel and T. B. Lowe, "Social work student's acceptance of afrocentricity into the social work curriculum," J. of Teaching, Learning, and Scholarship, Vol.1, No.1, pp.1-15, 2014.

[10] D. Pellebon, "Is afrocentricity marginalized in social work education? A survey of HBSE instructors," J. of Human Behavior in Social Environment, Vol.22, No.1, pp.1-19, 2012.

[11] 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대학에서의 거꾸로학습 사례설계 및 효과성 연구," 교육공학연구, 제30권, 제3호, pp.467-492, 2014.

[12] 석말숙, "사회복지교육에서 플립드러닝 수업의 효과성," 한국사회복지교육, 제35권, pp.1-29, 2016.

[13] 곽한영, "플립러닝기법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모델연구," 법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pp.43-71, 2016.

[14] R. S. Davies, K. L. Dean, and N. Ball, "Flipping the classroom and instructional technology integration in a college-level information systems spreadsheet course," J. of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Vol.61, pp.563-580, 2013.

[15] C. Brame, *Flipping the Classroom,* Vanderbilt University Center for Teaching, Retrieved [todaysdate] from http://cft.vanderbilt.edu/guides-sub-pages/flipping-the-classroom/2013.

[16] J. Bergmann and A. Sams, "Flip your students' learning," J. of Educational leadership, Vol.70, No.6, pp.16-20, 2013.

[17] S. Bates and R. Galloway, *The inverted classroom in a large enrolment introductory physics course: A case study*, In proceedings of the Higher Education Academy STEM conference, London: UK, 2012.

[18] J. Enfield, "Looking at the impact of the flipped classroom model of instruction on undergraduate multimedia students at CSUN," J. of Tech Trends, Vol.5, No.6, pp.14-27, 2013.

[19] 임철일, 김선영, 이지현, 김현수, 한형종, *대학에서의 역전학습설계 및 적용사례비교연구*, 2014한국교육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396-406, 2014.

[20] M. Warschauer, *Motivational aspects of using computers for writing and communication*, In M. Warschauer (ED.), Telecollaboration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Proceedings of the Hawai'i symposium, (Technical Report #12) (pp.29-46). Honolulu, Hawai'i: University of Hawai'i Second Language Teching & Currculum Center, 1996.

[21] 김백희, 김병홍, "플립드러닝을 기반으로 한 역할 교체식 토의 수업방안연구," 우리말연구, 제37권, pp.141-166, 2014.

[22] J. F. Strayer, "How learning in an inverted classroom influences cooperation, innovation, and task orientation," J. of Learning Environment Research, Vol.15, pp.171-193, 2012.

[23] 정민, *Flipped Classroom 학습이 초등학생의 수학과 학업성취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학습자 중심 플립드러닝 수업의 적용사례," 교육공학연구, 제30권, 제2호, pp.163-191, 2014.

[25] M. Hertz, *The Flipped classroom*, Pro and con.

Edutopia, Retrieved from: http://www.edutopia.org/blog/flipped-classroom-pro-and-con-mary-beth-hert, 2012.

[26] 김아영, 박인영,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 및 타당화연구,” 교육학연구, 제38권, 제1호, pp.95-123, 2001.

[27] 김은하, *목표지향성과 피드백유형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14.

## 저 자 소 개

**김 소 진(So-Jin Kim)** 정회원

- 현재 : 중부대 복지학부 조교수
- 200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관심분야> : 복지실천, 장애, 노인, 복지교육